



마음열기

평소 ‘참을성의 화신’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던 나는,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빵집을 본 순간 그 자부심을 잃었다. 출근길마다 풍겨 나오는 버터 향이 너무 강력해서, 마치 나를 붙잡고 “오늘도 안 들어올 거야?”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회의 시작 10분 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빵집으로 들어갔다.

“갓 구운 크루아상 하나만요!”

딱 이러고 바로 나가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문제는 계산대 옆에서 ‘시식용’이라는 작은 글자가 붙어 있는 초코브라우니였다. 한 조각만... 정말 한 조각만 먹으려다 보니, 어느 새 앞에 있던 조각들이 줄어들고 있었다.

직원이 내 눈을 보고 말한다.

“고객님, 맛있죠? 혹시 마음에 드시면... 그 접시는 저희가 교체해야 해서요.”

그제야 나는 내가 시식 접시 반을 먹어치웠음을 깨달았다.

부끄러워서 계산을 왕창 해버린 탓에, 빵 한 개만 사려던 나는 브라우니 세 박스를 들고 회사로 뛰어갔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오늘 발표자, 지각이네?”

“아... 저기... 브라우니 드시겠어요...?”

그날 이후, 팀원들은 나만 보면 말한다.

“참지 못한 자, 지갑을 잊고 살을 얻는다.”

☞ 이야기 속 화자는 자신을 ‘참을성의 화신’이라고 생각했지만, 빵집 유혹 앞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유혹을 참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선택을 했나요?



나눔

1. 아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서로 나누어 주세요.

▣ 최근에 가장 인내심이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 인내를 발휘했지만 결과가 기대와 달랐던 경험이 있나요?

▣ 요즘 내 삶에서 인내가 필요한 상황은 무엇인가요?

▣ 다른 사람에게 인내를 보여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2. 성경은 인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래 성경을 읽고 빈칸을 채우고 서로 나누어 보세요.

야고보서 1:2-4, 12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 야고보서 1:2-4, 12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성숙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요소를 무엇이라 이야기 하고 있나요?(2,3절)

▣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최근에 경험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며, 시련을 기쁘게 여기거나 인내하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3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말씀에서 ‘인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봅시다.

▣ 4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목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 12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적용과 결단

오늘날 우리는 벼락 스타를 꿈꾸며, 벼락 출세, 벼락 성장, 벼락 같은 문제해결, 벼락같은 결혼의 행복, 심지어 영적으로도 벼락 성숙을 바란다. 기대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그 일을 그만두고 만다. 우리는 직장이나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인간 관계나 영적인 추구를 미리부터 그만둔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애를 써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한다. 우리는 인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급속히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

자신의 지난날들을 돌이켜볼 기회가 생긴다면,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아쉽게 생각한 일들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아마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내가 예전에 먹을 것을 조금만 줄이고 열심히 운동을 했더라면 지금의 몸매는 되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 속에서 살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때로는 포기했기 때문에 받게된 쓴 대가를 생각하는 것도 가치있는 일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포기한 일이나 관계들로 인하여 생긴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옛날을 뒤돌아보고는 이런 말들을 한다. “어째서 그렇게 쉽게 포기했었을까? 왜 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지 못했던 것일까?” 그 답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참는 것 보다는 포기하는 편이 훨씬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일찍 일어나서 미래를 위해 무언가 하기보다는 따뜻한 침대속에 누워있는 것이 더 쉽고, 관계속에서 분쟁 중 참고 바라보기 보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괴로운 순간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인내하셨다. 로마 병정들이 수염을 뽑을 적마다, 누군가가 뺨을 칠대마다, 회초리에 등이 터질 때마다 지옥에서 “포기해!”라는 소리가 들렸다. 못이 손을 뚫고 지날 때, 구경꾼들이 조롱할 때, 아버지의 임재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으셨을 때, 예수님의 온 영혼은 소리질렀다. “포기해!” 그러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과 자신의 결의로써 포기의 순간을 넘겨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가능케 하신 죽음을 당하셨다. 지금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포기하려는 시점에 와 있다면, 그것을 내던져 버리기 전에 포기에 따르는 대가를 계산해보라. 당신의 삶 속에서 인내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당장 이번주부터라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빌 하이벨스

